서울 동작구

'빅뱅' 대성, 동거 관찰 예능으로 6년 만에 방송 복귀

〈채널A '결혼 말고 동거'〉


가수 대성 뉴시스

2006년 8월 곡 'We Belong Together'으로 데뷔한 아이돌 그룹 '빅뱅'은 국내 가요계에 한차례 지각 변동을 일으킨 뒤 2008년 일본에 진출해 현지 오리콘 월드 차트에 오르는는 등 한류 가수로 거듭났다.

지드래곤, 탑, 태양, 대성, 승리 5인조로 활동하며 '거짓말' '마지막 인사' '하루하루' '에라 모르겠다' '판타스틱 베이비(FANTASTIC BABY)' '우리 사랑하지 말아요' '베베(BAE BAE)' '몬스터(MONSTER)' '뱅뱅뱅(BANG BANG BANG)' 등 수많은 히트곡을 잇달아 발매해 주목받았다.

승리 탈퇴 후 4인조로 탈바꿈한 빅뱅은 지난해 4월, 4년 만의 신곡 '봄여름가을겨울'을 내놓아 각종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하며 데뷔 16년차에도 여전한 인기를 증명했다.

대성(본명 강대성)은 시원한 가창력과 친숙하고 익살맞은 이미지로 데뷔 초부터


마크힐스 서울 동작구 흑석동 172-8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데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아들이 목사가 되길 원했던 아버지의 극심한 반대로 마음고생이 심했다. '큰 목소리로 말씀을 전파하라'는 의미로 '큰 대(大)'에 '소리 성(聲)'이라고 이름지었을 정도다.

아들의 꿈에 무작정 반대는 아니었다. 지인의 자녀들이 가수되겠다고 학교까지 그만뒀지만 결국 뜻대로 안 됨을 지켜보며 생긴 자식 걱정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나 대성은 아버지의 걱정에도 몰래 MBC 아카데미를 다녔고 이후 6개월 만에 YG엔터테인먼트 관계자 눈에 띄면서 꿈에 그리던 YG 연습생으로 발탁됐다. 자신이 가수로서 재능을 인정받았음을 아버지께 알렸으나 쉽게 허락을 못받았다. 이후 가출을 감행하는 끝에 아버지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다.

자신이 원하던 꿈에 한 발짝 다가선 대성은 YG 연습생으로 보이그룹 멤버를 뽑는 서바이벌에서 이미 데뷔가 확정된 지드래곤, 태양을 제외한 연습생 중 유일하게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 표를 받았다. 이후 2006년 빅뱅으로 데뷔해 팀에서 고음을 담당하며 허스키한 목소리와 시원스러운 음색, 그리고 폭발적인 성량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뮤지컬에도 진출했다. 유쾌하고 긍정적인 성격, 뛰어난 가창력, 능수능란한 동작과 끼로 뮤지컬 '캣츠' 오리지널 크리에이티브팀의 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딴 뒤 2008년 뮤지컬 배우로 데뷔했다. 또한 그해 솔로 트로트곡 '날 봐 귀순'으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기를 끌었다.

아울러 '패밀리가 떴다' '밤이면 밤마다' '런닝맨' 등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쾌한 에너지와 재치 있는 입담으로 '예능계 블루칩'으로 떠올랐다. 이후 2018년 군 입대 등 이유로 2017년 SBS '판타스틱 듀오 시즌2' 출연을 마지막으로 오랜 기간 예능에 얼굴을 감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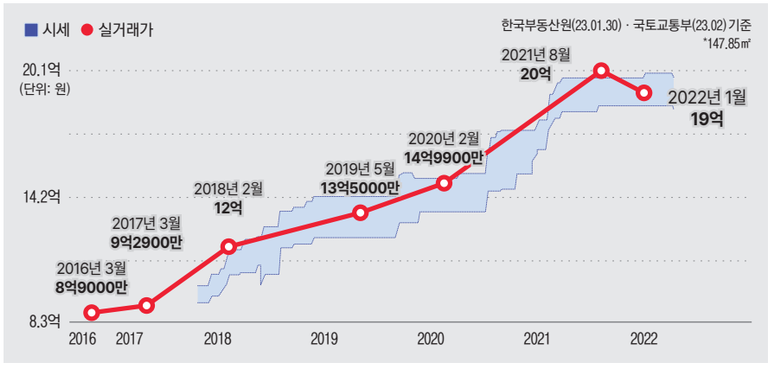
제대 후 지난해 12월 전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떠나 새 출발 한 대성이 오랜만에 4일 MBC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에 출연했다. 이어 연애와 결혼 사이에 있는 실제 커플들의 동거 관찰기를 담은 채널A '결혼 말고 동거'로 다시 한번 예능 나들이에 나선다.

방송 관계자는 "대성이 비투비 서은광, B1A4 신우, 배우 조윤우와 함께 '결혼 말고 동거' 게스트로 출연한다"며 "한 커플과 인연이 돼 출연하게 됐다. 어떤 커플과 인연인지 기대해달라"고 덧붙였다.

대성은 군 복무 당시 이기자 부대에서 함께하며 두터운 친분을 유지하는 서은광, 신우, 조윤우와 함께 활약할 예정이다. 방송 시기는 미정이며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원 기자 dwlee@skyedaily.com

---

흑석한강푸르지오 서울 동작구 흑석동 3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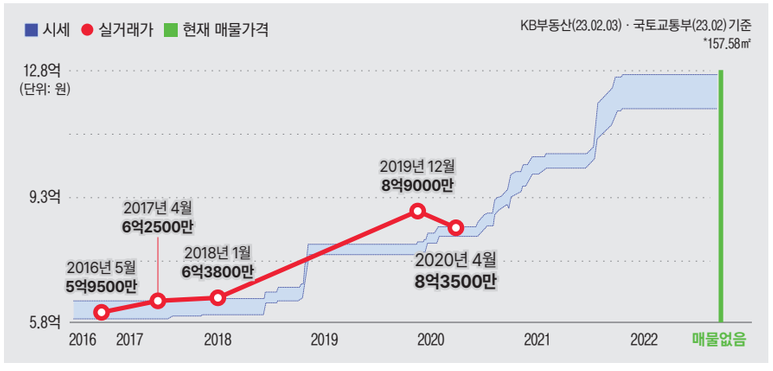
성일환 전)한국공항공사 사장



성일환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영남고를 나와 2000년 한남대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비행에 흥미를 느껴 1978년 공군사관학교를 26기로 졸업한 뒤 국방대에서 안보과정, 청주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한국 공군의 탑건으로 불리는 제29전술개발훈련비행전대에서 교관, 대대장, 전대장을 모두 거친 최정예 전투조종사 출신이다. 공군교육사령부 참모장, 제17전투비행단장, 공군본부 감찰실장, 공군사관학교장, 공군참모차장, 공군교육사령관 등을 지냈다. 2012년 4월18일 대장으로 진급해 33대 공군참모총장을 지냈으며 2016년 3월부터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선임돼 2018년 3월30일 퇴임했다. 한국공항공사 사장 시절 소통과 배려를 중시하는 리더십으로 임직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삼환나우빌 서울 동작구 상도동 520



이정희 전)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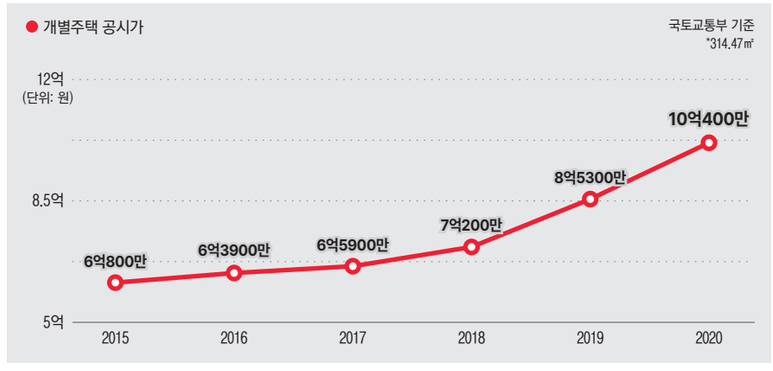


이정희 전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대표는 광주상고를 나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에서 조세법 연구과정을 수료한 뒤 연세대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국내외 회계법인과 경영자문기관 등에서 회계감사 및 회계자문, 경영자문, 조세계획·자문 업무를 맡았다. 1982년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한 후 이듬해 안진회계법인에 입사해 회계 업무를 시작했고 이후 미국 딜로이트 회계법인을 거쳐 나라정책연구회 청년위원장, 국민회의 경제대책위 운영위원, 딜로이트 하나회계법인 회계사, 공정위 및 국세청 자문위원,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장과 세무자문 대표 등을 지냈다. 2005년 딜로이트안진 부대표, 2017년 대표로 선임됐다.

특히 2010년 딜로이트안진 세무자문본부장 시절 실적을 국내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브랜드 파워 강화와 매출 증가를 견인했다.



단독주택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이한국 현)건일제약 대표이사



이한국 건일제약 대표이사는 연세대 화학과를 졸업하고 대웅바이오와 대웅제약 합성연구실, 제제연구실을 거쳐 미국지사에서 원료합성, 해외사업개발(BD) 등 경력을 쌓았다. 2018년 건일제약에 입사해 메디칼본부장, 연구개발(R&D)본부장을 지냈고 이상지질혈증치료 복합제 '로수메가'의 유럽허가와 BD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글로벌 사업 개발역량을 보여줬다. 지난해 1월 건일제약 대표이사로 선임된 그는 "국내 영업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 진출을 위한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전을 밝혔다. 건일제약은 '로수메가' '오마코' 등 순환계 브랜드와 각종 페니실린계 항생제, 주사제를 보유한 중견 제약사로 지난해 12월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37001 재인증을 획득했다.



맛깔나는 우리동네 부동산

경기, 올해 마을정원·도시숲 조성 등에 601억 원 투입

경기도

경기도는 도내 유휴지나 자투리땅에 마을정원 18개소를 조성해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도시 숲과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녹색공간 조성으로 생활속 정원문화 확산'을 목표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정원산업 시책을 추진한다. 도는 601억 원의 사업예산을 편성해 △정원문화 확산을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 △도시 숲 조성으로 탄소중립 실현 △도민휴식, 여가활동 중심의 도립공원 운영 △지질공원 운영·관리로 지역 활성화 기반구축 등 분야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12개 시군에 공공형 5곳, 시민주도형 13곳 등 총 18곳의 마을정원을 조성한다. 마을 정원은 유휴지, 환경 유해지 등에 정원을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가꿔가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원, 양평 등 도내 22개 시군에 82개소가 조성돼 있다.


오산 마을정원 전경. 경기도

이와 함께 식물·정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추기 위해 조경가든대학 270명, 시민 정원사 150명을 양성해 학교·복지시설·임대주택 등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활동과 연계한 정원관리도 병행한다. 또 정원의 가치 공유와 정원문화 확산에 발맞춰 10월 제11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광명 새빛 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도는 기후변화 완화, 대기 정화 등을 위해 미세먼지 차단 숲 7.9ha, 도시 바람길 숲 1개소, 서해안 녹지 벨트 6.8ha, 가로숲 길 44.6km를 조성하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자녀안심 그린 숲 14개소, 학교 숲 21개소를 만든다.

아울러 무장애 나눔 길 1개소, 복지시설 나눔 숲 2개소, 무장애 도시 숲 1개소, 그린커튼 1.5km를 조성해 보행 불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녹색공간을 늘려 도시 숲의 기능을 강화한다.

도에서 운영·관리하는 연인산도립공원과 수리산도립공원에는 자연환경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탐방로 정비, 주차장 조성 등 탐방객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시설 정비도 계속 진행한다.

특히 국내에서 4번째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은 올해 유네스코의 권고안을 이행하고 재인증을 통해 지위를 유지할 계획이다.

설종진 도 정원산업과장은 "도민의 정원 관심에 부응하고 민선8기 도정 철학을 구현하고자 공원녹지과를 정원산업과로 조직 개편한 만큼 언제 어디서든 정원을 접하는 경기도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15일 수원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정원산업과장과 산림녹지과장 주재로 경기도와 시·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정원산림 시책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올해 정원·산림 분야 추진 정책 발표와 사업별 추진계획 및 현안사업에 대한 건의, 개선 방안 모색 등을 다룰 예정이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

외삼네거리~장대삼거리 BRT 연결 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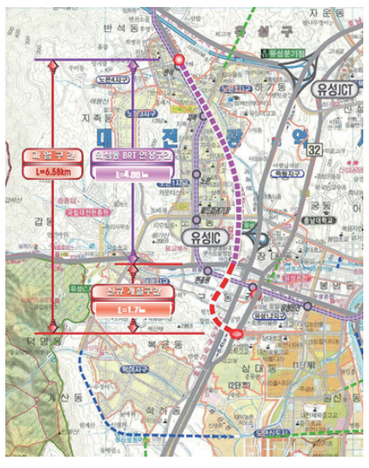
대전광역시

대전시는 외삼네거리에서 장대삼거리까지 기존도로 4.9km에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연결도로 개량과 정류장 신설을 위해 내달 15일부터 올해 말까지 순차적으로 공사 및 교통통제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도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간을 나눠 △4구간(장대삼거리~월드컵네거리)부터 공사를 착수하여 △3구간(월드컵네거리~은구비네거리) △2구간(은구비네거리~반석네거리) △1구간(반석네거리~외삼네거리)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왕복 2개 차로 BRT 버스 전용 차로 개설 및 BRT 정류장 4개소 설치를 위해 편도 5개 차로 중 최대 2개 차로에 대해 구간별로 통행을 제한하며 우회 도로를 안내할 계획이다.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 건설공사는 현재 운행 중인 반석역~세종



외삼네거리~장대삼거리 BRT 연결도로 공사 사업 위치도. 대전시

BRT 노선을 구암동 유성복합터미널까지 연결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1583억 원(국비와 시비 각각 791억5000만 원)을 들여 2018년 3월 착공해 2025년 말까지 추진한다. 기존 개량구간의 공사는 올해 12월 말 완료할 예정이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